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3. 9. 6 | 통권 제43호(2013-07)|

2013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 및 하반기 전망*

[요약]

- 2013년 상반기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291천 명 증가하여 국제금융위기 이후 가장 소폭으로 증가함. 취업자 증가는 50대 이상, 상용직 근로자, 제조업 중심으로 나타남.
- 이는 상용직 위주의 취업자 증가(전년동기대비 596천 명)와 그 외 종사상 지위 취업자들의 감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임.
- 2012년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던 자영업 등 비임금근로자는 2013년 상반기 들어 110천 명 감소하였으며, 연령집단별로 보면 20대(-95천 명)뿐만 아니라 30대(-4천 명)에서도 취업자 감소가 관측됨.
- 우리 경제는 2013년 2사분기 들어 2.3% 성장하여(전년동기대비) 비교적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고용탄력성은 0.563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 2013년 하반기 취업자는, 2012년 4사분기~2013년 1사분기간의 경기저점 통과에 따른 후행적 반응으로 상반기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어, 365천 명(연간 328천 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 글은 「2013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고용전망」(동향분석팀(2013), 『노동리뷰』 8월호, 한국노동연구원)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임.

2013년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폭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가장 적으나 최근 들어 확대되는 중

- 2013년 상반기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291천 명 증가하여 국제금융위기 이후 가장 소폭으로 증가함.
 - 그러나 경기회복 진전에 따라 6월 전년동월 대비 36만 명, 7월 36만 7천 명 등 최근 들어 취업자 수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음.
-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로 볼 때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이래 둔화추세에 있었으나, 6월과 7월 두 달 연속 증가함.
 - 2013년 초를 저점으로 이후 추세전환 판단 가능
 - 15~64세 고용률도 전체 고용률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임.
 - 2013년 상반기에 남성은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한 70.5%, 여성은 전년동기와 동일한 48.1%의 고용률을 보였음.

- 2013년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는 50세 이상 고령층이 주도(225+168=393천 명)하는 가운데 20대 후반 청년과 30대 후반 연령대에서 취업자 수 감소(각각 -110천 명, -100천 명)가 나타났음.
 - 청년층의 경우 20~24세는 취업자 수가 15천 명 증가했는데, 이는 이 연령대의 인구가 147천 명 증가한 영향임.
 - 2013년 상반기 청년층은 전체로 보나 5세 구간으로 나누어 보나 성별로 보나 고용률이 모두 감소했고, 이는 경기회복이 미약해 노동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소 증가한 6, 7월에도 지속되고 있음.
 - 30대 후반도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지만, 이는 이 연령대 인구가 127천 명 감소한 영향을 받은 결과로 30대 후반 남성은 고용률이 0.6%p 상승함(여성은 0.8%p 하락).
 - 50세 이상은 남녀 모두 취업자 수뿐 아니라 고용률도 상승함.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전년동기

[그림 1]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p)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수 증감						취업자 수 2013. 1~6	생산가능인구 증감		
	2010	2011	2012	2011. 1~6	2012. 1~6	2013. 1~6		2011. 1~6	2012. 1~6	2013. 1~6
15~19세	27	22	4	30	3	-8	221	22	-49	-24
20대	-69	-58	-40	-91	-6	-95	3,546	-132	-52	49
20~24세	-11	-11	89	-14	83	15	1,252	18	117	147
25~29세	-59	-47	-129	-77	-89	-110	2,293	-150	-169	-98
30대	-4	-47	-31	-23	-73	-4	5,721	-83	-112	-61
30~34세	45	44	79	30	56	97	2,887	40	37	66
35~39세	-49	-91	-110	-53	-129	-100	2,834	-123	-149	-127
40대	29	57	11	68	18	3	6,608	12	14	37
50대	294	291	270	290	293	225	5,506	349	324	269
60세 이상	47	149	222	140	214	168	3,153	294	377	274
전 체	323	416	437	413	449	291	24,755	462	503	54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

(단위: 천 명)

	2010	2011	2012	2011. 1~6	2012. 1~6	2013. 1~6
전 체	323	416	436	412	449	290
임금	517	427	315	470	320	400
상용직	697	575	436	613	396	596
임시직	-34	-78	-2	-113	92	-161
일용직	-146	-70	-120	-30	-167	-35
비임금	-194	-11	121	-57	129	-110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8	6	43	-16	81	-54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00	-5	81	-61	80	-12
무급가족종사자	-76	-12	-3	20	-32	-4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대비 상용직 596천 명 증가에 힘입어 400천 명이 증가하였으나,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54천 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12천 명), 무급가족종사자(-44천 명) 모두 감소함.

- 상용직 증가 596천 명 중 77.3%에 해당하는 461천 명이 3년 이상 근속자에서 증가하여, 신규채용이 늘어 상용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어려움.

■ 2013년 상반기 고용은 제조업 고용이 12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서비스업 고용증가폭의 둔화를 제조업이 만회해 주는 양상임.

- 2013년 1사분기 제조업 성장률이 1.0%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동안 전년동기대비 120천 명 증가한 것은 2012년 고용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표 3〉 산업별·규모별 고용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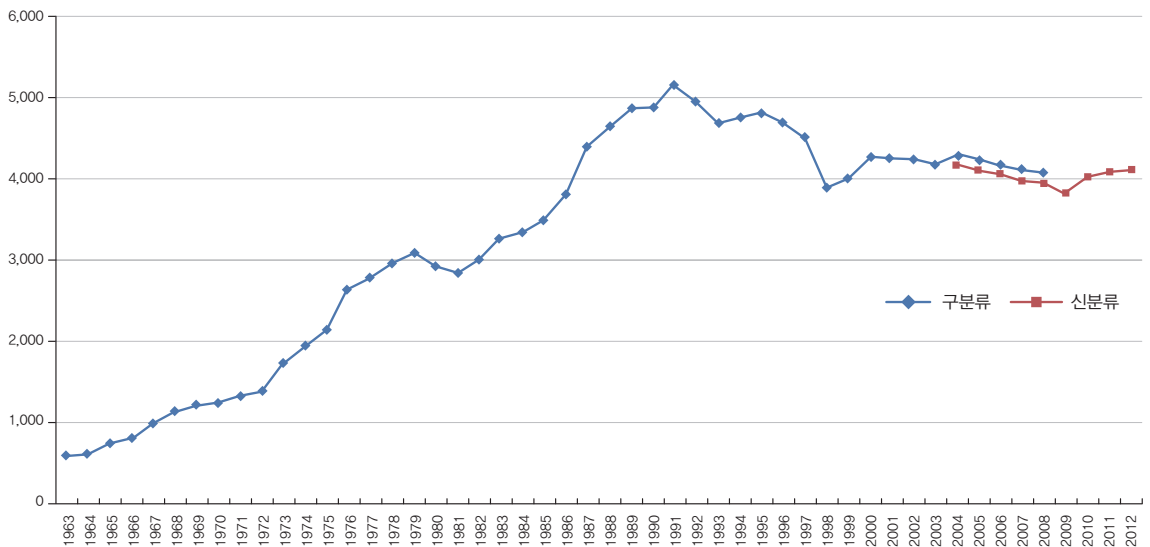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10	2011	2012	2011. 1~6	2012. 1~6	2013. 1~6
전체 취업자		323	416	436	412	449	290
산업별	농림어업	-84	-29	-16	-14	-33	-16
	건설업	33	-2	22	-22	56	-35
	제조업	191	63	14	170	-84	120
	서비스업	200	386	416	279	516	205
	도소매업	-20	58	51	16	79	-59
	운수업	33	52	48	32	57	31
	숙박, 음식점업	-47	-36	53	-49	41	35
	출판, 영상 등	16	35	-3	18	27	-19
	금융보험업	42	38	-4	24	16	11
	부동산, 임대업	17	-31	0	-28	0	-12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40	77	67	76	66	18
	사업시설관리 등	78	64	30	92	19	85
	교육서비스업	-33	-113	58	-157	61	-19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155	158	88	197	92	129
	예술, 여가관련서비스업	-11	37	-8	47	2	-37
	협회, 기타개인서비스업	5	45	25	14	16	47
	공공	-71	-9	0	-17	24	-6
민간	395	424	436	430	425	296	
규모별	중소기업	354	378	381	350	442	166
	대기업	-31	37	55	62	7	12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2] 제조업 취업자 수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2013. 6), 『매월고용동향분석』 창간호.

- 제조업 취업자 수는 [그림 2]에서 보듯이 2001년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9년까지 단기적인 등락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을 저점으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2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증가폭은 둔화되고 있는 추세임.
- 반면, 서비스업 부문 고용은 2013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205천 명 증가에 그쳐 2012년 516천 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최근 고용증가세 둔화를 서비스업 부문, 특히 내수산업인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 주도하고 있음.
- 2013년 상반기 건설투자가 다소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 고용은 임시직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35천 명 감소함.
- 2013년 상반기 서비스업 부문 고용은 임시직과 자영업자 고용감소로 고용증가폭이 크게 둔화됨.
 - 서비스업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서비스업 고용은 중고령층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무려 416천 명 증가한 반면, 2013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205천 명 증가에 그침.
 - 2013년 상반기 서비스업 고용증가폭 둔화를 주도하고 있는 임시직의 고용감소폭(130천 명↓)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감소폭을 기록하였으며 주로 3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 각각 전년동기대비 46천 명, 61천 명 감소함.
 - 이와 더불어 서비스업 부문 자영업자는 50세 이상 중고령층의 고용증가폭이 크게 줄어 전년동기대비 26천 명 감소하여, 2012년 132천 명 증가하면서 고용증가세를 견인했던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임.

제조업, 상용직 중심의 고용증가

- 최근 고용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상용직 증가 추세에 맞춰 제조업 고용증가세도 상용직이 주도하고 있으며, 고졸생산직종에서의 고용증가가 두드러짐.
 - 제조업 상용직은 전년동기대비 162천 명 증가하였으며, 이 규모는 2010년 상반기에 기록한 117천 명을 뛰어넘는 규모로, 당시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기로 경제성장률이 8.1%(2013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9%)를 기록했던 시점임.
 - 주로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상용직으로, 이 산업들은 최근 제조업 고용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들임.
- 2013년 상반기 300인 이상 규모의 대기업 고용(125천 명↑)은 상용직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은 고용증가폭 둔화가 두드러짐.
 - 중소기업의 고용은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임시직(162천 명↓)과 자영업자(66천 명↓)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166천 명 증가에 머물러 2012년 442천 명 증가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둔화됨.
- 2013년 상반기에도 2012년에 이어 고용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금근로자의 신규

〈표 4〉 제조업 상용직의 특징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0	2011	2012	2011. 1~6	2012. 1~6	2013. 1~6
제조업 상용직		184	110	84	205	11	162
산업 중분류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10	-1	2	-1	-2	30
	28. 전기장비제조업	3	8	22	16	18	22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26	-4	24	0	7	32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13	10	23	20	11	30
고졸 상용직		87	13	52	65	2	10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5〉 서비스업 취업자의 특징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0	2011	2012	2011. 1~6	2012. 1~6	2013. 1~6
서비스업		200	386	416	279	516	205
지위	상용직	502	475	345	420	374	397
	임시직	-46	-57	36	-75	105	-130
	도소매업	7	-19	-10	-14	2	-46
	교육서비스업	-31	-32	9	-44	31	-61
	일용직	-85	-39	-65	-20	-81	-5
	자영업자	-112	8	106	-67	132	-26
	50세 이상	16	105	100	73	129	44
	무급가족종사자	-59	0	-6	21	-14	-3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6〉 제조업·서비스업 신규채용 규모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10	2011	2012	2011. 1~6	2012. 1~6	2013. 1~6
임금 근로자	전 체	517	427	315	470	320	400
	3개월 미만	10	-81	-108	-54	-63	-92
	3개월~1년 미만	171	-48	17	-44	3	-135
	1년 이상	336	556	406	568	380	627
제조업	전 체	162	69	40	175	-56	158
	3개월 미만	26	-11	-21	0	-31	-1
	3개월~1년 미만	87	-9	-20	17	-28	-14
	1년 이상	49	90	80	158	2	173
서비스업	전 체	371	379	317	325	398	262
	3개월 미만	-10	-44	-62	-32	5	-97
	3개월~1년 미만	85	-34	55	-46	31	-74
	1년 이상	295	456	323	403	362	433

주: 근속기간은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함. 3개월 미만 근속자를 신규채용으로 간주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7〉 한국은행 2013년 경제전망

(단위:%, 만 명)

	2013. 1				2013. 4				2012. 7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세계경제성장률	3.1	3.6	3.4	3.8	3.0	3.6	3.3	3.9	3.0	3.4	3.2	3.8
경제성장률	1.9	3.5	2.8	3.8	1.8	3.3	2.6	3.8	1.9	3.7	2.8	3.5
민간소비	2.6	3.0	2.8	3.4	2.3	2.6	2.5	3.3	1.7	2.4	2.1	3.5
수출	4.3	6.6	5.5	8.2	4.5	5.9	5.2	8.3	5.0	5.2	5.1	8.0
취업자 수	27	33	30	32	25	30	28	30	29	36	32	40
실업률	3.5	3.1	3.3	3.2	3.5	3.2	3.4	3.3	3.4	3.0	3.2	2.8

자료 : 한국은행, 『2013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도자료.

채용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은 전년동기대비 92천 명 감소하였고, 특히 서비스업 부문의 신규채용 감소는 교육서비스업, 도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집중됨. 반면, 제조업 고용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제조업 상용직의 신규채용은 소폭 증가함.

2013년 하반기 취업자 수, 365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연간 328천 명)

- 2013년 2사분기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2.3%(전기대비 1.1%)로 2012년 4사분기의 경기저점을 통과하는 듯한 양상임.
 - 한국은행(2013년 7월)은 세계 경기 호조에 대한 예상을 반영하여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6%에서 2.8%로 상향조정함(하반기 3.3% → 3.7%).
 - 지난 2012년 3사분기 중 1,321까지 상승하였던 고용탄력성은 이후 꾸준히 하락하여 2013년 2사분기 들어서는 0.563까지 하락함.

- 2013년 하반기 중에는 민간소비의 완만한 증가와 설비투자·건설투자 등도 회복으로 돌아서면서 수출증가와 함께 경기회복을 이끌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하반기 고용사정은 2012년 4사분기와 2013년 1사분기의 경기저점 통과에 따른 후행적 반응으로 상반기에 비해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2013년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7%라는 전제하에, 하반기 취업자 증가 수는 365천 명으로 연간 1.3%의 취업자 증가율이 예상됨.
- 2013년 상반기에 나타난 자영업자 감소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부진으로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50대 이상 중고령자 중심의 고용증가세도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에 따른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노력이 본격화될 경우 취업자 증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표 8〉 하반기 고용전망

(단위: %, 천 명)

	2012			2013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p	연간p
경제성장률	2.6	1.5	2.0	1.9*	3.7	2.8
생산가능인구	41,441	41,724	41,582	41,985	42,247	42,116
경제활동인구	25,359	25,643	25,501	25,614	26,013	25,814
경제활동참가율	61.2	61.5	61.3	61.0	61.6	61.3
취업자	24,465	24,897	24,681	24,755	25,262	25,099
(증가율)	1.9	1.7	1.8	1.2	1.5	1.3
(증감수)	449	424	436	291	365	328
실업자	894	746	820	859	751	805
실업률	3.5	2.9	3.2	3.4	2.9	3.1
고용률	59.0	59.7	59.4	59.0	59.8	59.4
비경제활동인구	16,082	16,081	16,081	16,371	16,234	16,302

주: *는 속보치, p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2013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도자료.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팀
02-3775-5590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이인재 / 편집인: 남재량 / 편집·교정: 정 철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Tel : 02-3775-5514 / Fax : 02-3775-0697 / www.kli.re.kr